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 연구기술 지원에 힘쓸 것

문홍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장

- 1987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1994 서울대학교 동물자원학 농학석사
- 1997 서울대학교 동물자원학 농학박사
- 1990~2002 축산시험장, 기술지원국, 연구정책국 축산연구사
- 2002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기술협력과 농업연구관
- 2008 국제기술협력과장
- 2011~2012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 2012~2014 미국 농업연구청(ARS) 상주연구원
- 2014.3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장
- 2014.5 본지 편집위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길 가금과장은 지난 2014년 3월 임명되었다. 문홍길 과장을 만나 가금과의 주요 활동사항과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3월 신입 가금과장님으로 부임하셨죠. 활동사항과 근황이 궁금합니다.

1987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축산시험장 축산연구사로 입사하면서 양돈과, 영양생리과, 국제기술협력과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은 미국 농업연구청(ARS,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에 상주연구원으로 파견되어 각종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죠. 농진청-ARS 간 협력과제 개발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연구, 농업시시트메 경쟁력과 지속성 연구, 식품 안전성 연구, 가축생산 연구,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등 ARS의 연구동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업 정책관련 정보수집과 자료 분석을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국가기관의 농업연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업무를 수행을 훌륭히 마치고 금년 3월 축산과학원 가금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양계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의 금년 계획은?

금년도 가금과의 주요 업무는 △가금종축 복원 △고품질 가금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사육기술 개발 △개발기술 보급 및 현장 컨설팅 업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첫째로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분산 보존 가금 종자를 활용해 종축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5품종 12계통의 가금종자를 대상으로 추후 멸실 위험 최소화를 위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한우시험장 등 3개소에 분산하여 육성해 금년 12월까지 육성과 기술적 복원을 완료, '15년에는 농가 분양 가능사례로 완전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고품질 가금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사육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수 병아리 생산을 위한 공급단계별 관리방안을 구축하고자 종계장 우량 병아리 생산을 위한 관리기술 확립과 부화장 내 병아리 위생·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설정, 병아리 강건성에 미치는 In ovo feeding 영양물질 선발 및 효과를 구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증대를 위한 고품질 산란노계육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산란노계육 저장성 증진 기능성 첨가제 및 포장가공기술 개발을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닭 주요 발생 질병에 대한 맞춤형 항생제 대체제 개발, 생리활성물질에 의한 위장관내 병원성 세균 억제효과를 구명, 쌀 도정 부산물 활용을 통해 가금용 발효사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장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개발기술 보급에 힘쓸 방침입니다. 고양, 양주, 철원, 음성, 김제, 칠곡 등 10개소 양계단지를 대상으로 종합기술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술 투입 전 산란수 260개/년에서 투입후 280개까지 끌어올리고, 72주령 폐사율은 현재 10%에서 단지별 백신 적용 후 7%로 경영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란계, 육계 주산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사료·영양, 친환경축산, 시설환경, 경영, 질병관리 등 전문가 통한 집단 컨설팅을 통해 양계 주산단지 농가 기술 향상을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한편, 정부 3.0과자로 우리맛닭, 우리맛오리 종자

분양농가에 대한 종자 육성 및 사양관리, 질병관리기술 등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본원 가금과에서는 우수 병아리 생산을 위한 공급단계별 관리방안을 구축, 수출증대를 통해 고품질 산란노계육 생산기술 개발, 닭 주요 발생 질병에 대한 맞춤형 항생제 대체제 등을 연구·개발하여 개발기술 보급 및 현장컨설팅으로 가금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선 AI 발생으로 인해 소실된 국립축산과학원의 토종닭 및 토종오리를 하루빨리 복원하여 국산 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동시에 '15년 말까지 강원도 평창으로 이전 예정인 가금연구단지 이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한편, 가금과 연구원 및 산업체, 학계 등 유관기관 종사자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축산과학원 가금과의 미션과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안고 있는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본원에서 수행해 나가기 위해 미션에 적합한 연구원들의 역량을 모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계농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 AI로 인해 많은 양계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아픔을 단순한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시설개선 및 방역의식 고취를 통해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통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계농가 여러분들, AI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닭질병가이드 절찬 판매중!!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국내 양계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닭 질병가이드'를 출간하였습니다.

'닭질병가이드'는 기존의 나열식 틀에 박힌 질병책자들과 차별화를 두어 호흡기, 소화기, 면역기 등의 각종 장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찾아가기 형식을 이용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닭질병가이드'가 필요한 농가나 관련업계에서는 지금 곧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발송비 포함) : 20,000원/권, 15,000원/권(본회회원 및 10권 이상 주문시)
입금계좌 : 097-01-000953(대한양계협회, 농협)
연락처 : (사)대한양계협회 홍보부 최인환 기자(02-588-7651)

